

中風의 治法 중 潛陽法에 대한 문헌고찰

閔健祐 · 朴鍾赫 · 鄭智天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초록】 潛陽法은 平肝治法의 일종으로 肝陽이 上亢해서 나타나는 頭目昏暈, 手足抽搦, 口眼喎斜, 舌乾語澁, 頭痛不止, 猝然倒地 등의 症狀에 쓰는 治法이며 中風의 標實證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多用되고 있다. 中風에서의 活用은 清代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는데, 葉天士는 “滋液熄風, 濡養營絡, 補陰潛陽”을 사용하였고, 張伯龍은 “潛鎮攝納”하는 치료법을 사용하였다. 中風의 病理가 本虛標實하므로 항상 滋陰, 補水하는 治法과 相互補完의 으로 사용되고 있다. 潛陽法이 多用된 病證은 肝腎陰虛, 風陽上擾로 인한 中經絡證과 中臟腑證 중에서 陽閉證이며, 脫證의 일부와 中風日久로 인한 癱瘓에도 사용되었다. 潛陽藥 중 珍珠母, 石決明, 玳瑁, 牡蠣, 貝齒, 龜板, 鱉甲 등 介類의 效力이 뛰어나고, 治方으로는 鎮肝熄風湯, 虎潛丸, 固本丹, 復脈湯, 天麻鉤藤飲, 羚羊角湯 등이 활용되고 있다.

중심낱말 : 中風, 潛陽法, 鎮肝熄風湯

I. 緒 論

中風은 突然히 昏倒하여 人事不省, 痰涎壅盛, 言語不利, 半身不遂, 口眼喎斜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卒中, 偏枯, 偏風이라고도 한다. 西洋醫學的으로는 腦의 급격한 循環障로 인하여 갑자기 意識障과 運動麻痺 등을 일으키는 腦血管 疾患이 中風의 범주에 속하며 뇌경색,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성뇌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¹⁻³⁾

中風의 原因에 대하여는 「內經」에서부터 唐宋以前까지는 外風으로 인식하여 人體氣血虛損 脈絡空虛 外衛不固 風邪侵犯하여 發病한다고 생각하였고, 金元시대 이후부터는 外因보다 火氣濕熱 瘀血 등의 內因에서 그 原因을 찾으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⁴⁾ 특히 清代에 이르러 葉天士는 中風의 內因을 眞中과 類中の 구별을 명확히 하고자 陰虛陽亢의 病機로 “精血耗散 水不涵木 木少滋榮 肝陽偏亢 內風時起”라 하여 內風說을 主張하였고, 이후 張伯龍, 張錫純,

張山雷는 內經의 “血宛于上”, “血之與氣并走于上”의 病機로 內風에 의한 病因을 發展시켰다.⁵⁾

中風의 일반적인 治法은 全身氣血을 살피서 臟腑의 不調와 六淫의 偏在狀態을 잘 조절하여 전신기능을 調和시켜주는 것이다.⁶⁾ 葉天士는 中風의 治法으로 “滋液熄風, 濡養營絡, 補陰潛陽”, 張伯龍은 “潛鎮攝納”하는 법을 사용하였다.^{7,8)} 최근에는 平肝潛陽, 滋陰熄風, 活血化瘀, 清熱化痰 등이 治法이 사용되고 있다.⁹⁾

潛陽法은 平肝熄風, 平肝潛陽으로 大別할 수 있는 平肝治法의 일종으로 肝陽이 上亢해서 나타나는 頭目昏暈, 手足抽搦, 口眼喎斜, 舌乾語澁, 頭痛不止, 猝然倒地, 舌紅苔膩, 脈弦數한 증상에 쓰는 治法이다.⁵⁾

中風은 本虛標實證으로 本虛인 肝腎不足, 氣血衰를 培養하기 以前에 風火濕痰瘀血이 壅盛한 標實을 다스리는 것이 于先이고,⁶⁾ 潛陽降氣하는 治法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著者는 中風治法에 있어서 潛陽法의 活用에 대해서 考察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金匱要略」¹⁰⁾

風引湯, 除熱癰癩

風引湯方

大黃 乾薑 龍骨 各四兩, 桂枝 三兩, 甘草, 牡蠣 各 二兩, 寒水石 滑石 赤石脂 白石脂 紫石英 石膏 各六兩.

以上十二味, 杵麩篩, 以韋裹盛之, 取三指撮, 井華水三升, 煮三沸, 溫服一升.

... 이 處方은 熱을 鎮降시키는 寒水石, 滑石, 赤石脂, 白石脂, 紫石英, 石膏 등의 石藥을 써서 內風을 가라앉히고 輔藥으로서 龍骨, 牡蠣의 鎮靜藥을 쓰고, 大黃으로 熱을 下行시키며, 桂枝와 乾薑을 脈을 回復시켜 內風을 가라앉게 하고 있다.

2] 「葉天士臨証指南醫案」⁷⁾

中風

2. 虛液風動

...金氏 69세. 처음에 정신이 아둔하고 遺尿가 있던 노인에게 갑자기 關中이 나타났다. 수개월 동안 잠을 못 이루니 이것은 陽氣가 陰과 만나지 못한 것이다. 痰火라 여겨 오로지 攻消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곧 下虛하여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이니, 潛陽을 제시하였다. 龜腹甲心 熟地炭 乾菴蓉 天冬 生虎脛骨 懷牛膝 炒杞子 黃柏 ...지금에 와서 葉氏가 內風을 발명하였으니 身中の 陽氣가 變動하고, 肝은 風臟으로 精血이 衰耗하여 水不涵木하고 木이 滋榮을 적게 받아 肝陽이 偏亢하고 內風이 때를 맞추어 발생한다. 滋液熄風, 濡養營絡, 補陰潛陽으로 치료하니 虎潛丸, 固本丹, 復脈湯 등이 이것이다...

肝風

2. 肝腎陰虛

...丁氏 43세. 생각이 뱅뱅 맴돌아 五志의 陽을 흔들며 陽化內風하여 變幻이 그치지 않는다. 무릇 陽이 動하여 억제되지 않는 것은 모두 臟陰이 적게 藏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上實下虛를

깨달아 治法은 介로 潛之하고, 酸味로 收之하며, 厚味로 填之하니 偏寒偏熱로 어찌 情志中病을 治療할 수 있으리오? 熟地 萸肉 五味 磁石 茯神 青鹽 鱉甲膠 龜板膠. 卽溶膠爲丸.

5. 風陽擾腎

...曹氏. 肝膽陽氣가 內風을 끼고 上騰不熄하며 心中에 熱이 있고 驚怖多恐하다. 和陽鎮攝의 方法을 쓴다. 龜板 龍骨 牡蠣 茯神 石菖蒲 遠志.

16. 驚恐動肝

...王氏 50세. 驚恐惱怒가 肝을 動하여 內風陽氣가 沸騰한다. 腕痺咽阻하고 筋惕肌麻하니 이것은 모두 風木이 과하게 動하여 陽明이 나날이 쇠하게 된 것이다. 먼저 鎮陽熄風法을 쓴다. 阿膠 細生地 生牡蠣 川斛 小麥 茯神.

...肝은 風木의 장기이므로 相火가 발생되니 體陰用陽이라. 그 性은 剛하고 主動, 主升하니 오로지 腎水의 涵養을 받아 血液으로써 營養공급을 받아 肺金의 清肅下降으로 平衡을 이루고 中宮의 土氣로써 복돋으면 剛勁한 기질이 柔軟하게 되어 마침내 그 茂盛한 성질을 얻으니 어찌 병이 있겠는가? 오직 精液이 虧虛하면 肝陰이 부족하고 血燥하여 熱을 발생시키고 熱한 즉 風陽이 上昇하여 經絡이 阻滯되어 頭目不清하고, 眩暈跌倒하고 甚하면 癩癧瘰癧이 된다. 선생의 治法은 이른바 緩肝으로 급히 熄風하고, 滋腎함으로써 驅熱하는데 예를 들어 虎潛, 侯氏黑散, 地黃飲子, 滋腎丸, 復脈湯등의 처방에 가감한다. 이는 介로써 潛之하고, 酸味로써 收之하며, 厚味로써 填之하거나 혹은 清上實下하는 治法이다.

眩暈

5. 陰虛陽升

...田君 27세. 煩勞로 陽氣가 크게 動하여 內風으로 變化되면 바로 淸空을 가득 메워 마침내 眩暈이 된다. 능히 식사할 수 있고 피부가 충실하면 병이 中上焦에 있지 않은 것이다. 介類 藥물로 眞陽을 가라앉히면서 鹹酸한 藥물을 배합하여 쓰는 것이 좋다. 淡菴膠 龜板膠 阿膠 熟地

萸肉 茯苓 川斛 建蓮 山藥漿丸.

...內經에 이르기를 諸風掉眩 皆屬于肝이라 하였다. 眩暈을 앓는 것은 外部의 邪氣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肝臟의 風陽이 上部에 뭉친 따름이니 심하면 昏厥跌倒할 수도 있다...痰이 많은 것은 반드시 陽明을 다스려야 하니 消痰에는 竹瀝 薑汁 菖蒲 橘紅 二陳湯 같은 것이 있다...下虛한 것은 반드시 肝을 치료해야 하니 補腎滋肝, 育陰潛陽하는 治法을 써야 한다. 天麻 鈞鈎藤 菊花 같은 종류는 모두 熄風하는 藥材이니 證을 따라 첨가한다.

3] 「類證治裁」¹¹⁾

類中風本非外風, 猝倒昏厥, 無喎斜偏癱等症, 是宜辨也. 故葉氏謂內風乃身中陽氣變化, 肝爲風臟, 因血液衰耗, 水不涵木, 肝陽偏亢, 內風時起, 宜滋陰熄風, 濡養營絡. 以熟地 首烏 枸杞 當歸 牛膝 胡麻 石斛 五味子 甘菊 牡蠣, 補陰潛陽, 如虎潛丸 固本丸 復脈湯之類...風陽上升, 痰火阻竅, 神識不清, 至寶丹.

....

<宣竅> 至寶丹 烏犀角 朱砂 雄黃 玳瑁 琥珀各研一兩 麝香 龍腦各研一錢 金銀箔各五十片 牛黃研半兩 安息香一兩. 將安息香熬膏, 和劑藥末, 分作百丸, 蜡護...

<補陰> 虎潛丸 黃柏 知母 熟地 龜板 虎脛骨 鎖陽 當歸 牛膝 白芍 陳皮 羯羊肉. 搗丸....

<補元> 固本丸 人參二兩 天冬 麥冬 生地 熟地 各四兩 蜜丸

<潤燥> 復脈湯 炙甘四兩 桂枝 人參 阿膠各二兩 生地一斤 麥冬 麻仁 各八兩 大棗十二枚 水酒各半煎. 一名炙甘草湯.

4] 「醫學衷中參書錄」¹²⁾

治內外中風方

熄風湯 治類中風

人參五錢 赭石煨研五錢 大熟地一兩 山茱萸去淨核六錢 生抗芍四錢 烏附子一錢 龍骨不用煨五錢 搗 牡蠣不用煨五錢 搗

類中風之證, 其劇者忽然昏倒, 不省人事, 所謂

尸厥之證也. 秦越人論號太子尸厥謂, 上有絕陽之絡, 下有破陰之紐. 妙哉其言也. 蓋人之一身, 陰陽原相維系. 陽性上浮而陰氣自下吸之, 陰性下降以陽氣自上提之, 陰陽互根, 渾論環抱, 壽命可百年無恙也. 有時保養失宜, 下焦陰分虧損, 不能維系上焦陽分, 則陽氣脫而上奔, 又兼腎水不能濡潤肝木, 則肝風煽動, 痰涎上壅, 而卒然昏倒, 疆直如尸矣. 故用赭石佐人參, 以挽回其絕陽之絡, 更有龍骨·牡蠣以收斂之, 則陽能下濟. 用萸肉佐熟地以填補其破陰之紐, 更有附子以溫煦之, 則陰可上達. 用芍藥者, 取其與附子同用, 能收斂浮越之元氣歸藏于陰也. 且此證肝風因虛而動, 愈迫陽氣上浮. 然此乃內生之風, 非外來之風也. 故宜用濡潤收斂之品以熄之. 芍藥如龍骨·牡蠣·萸肉又爲寧熄內風之妙品也....

鎮肝熄風湯

治內中風證, 其脈弦長有力, 或上盛下虛, 頭目時常眩暈, 或腦中時常作疼發熱, 或目張耳鳴, 或心中煩熱, 或時常噫氣, 或肢體漸覺不利, 或口眼漸形歪斜, 或面色如醉, 甚或眩暈, 至于顛倒, 昏不知人, 移時始醒, 或醒後不能復原, 精神短少, 或肢體痿廢, 或成偏枯.

懷牛膝一兩 生赭石軋細一兩 生龍骨搗碎五錢 生牡蠣搗碎五錢 生龜板五錢搗碎 生抗芍五錢 玄參五錢 天冬五錢 川練子搗碎二錢 生麥芽二錢 茵陳二錢 甘草錢半....

風名乃中, 言風自內生, 非風自外來也. <內經>謂“諸風掉眩皆屬于肝”. 蓋肝爲木臟, 于卦爲巽, 巽原主風. 且中寄相火, 征之事實, 木火熾盛, 亦自有風. 此因肝木失和, 風自肝起. 又加以肺氣不降, 腎氣不攝, 沖氣·胃氣又復上逆. 又斯, 臟腑之氣化皆上升太過, 而血之上注于腦者, 亦因之太過, 致充塞其血管而累及神經. 其甚者, 治令神經失其所司, 至昏厥不省人事. 西醫名爲腦充血證, 誠由剖解實驗而得也. 是以方中重用牛膝以引血下行, 此爲治標之主藥. 而復深究病之本源, 用龍骨·牡蠣·龜板·芍藥以鎮熄肝風. 赭石以降胃·降沖. 玄參·天冬以清肺氣, 肺中清肅之氣下行, 自能鎮制肝木. 至其脈之兩尺虛者, 當系腎臟真陰虛損,

不能與眞陽相維系。其眞陽脫而上奔，并挾氣血以上沖腦部，故又加熟地，· 萸肉以補腎斂腎。從前所擬之方，原止且數味。後因用此方效者固多，間有初次將藥服下，轉覺氣血上攻而病加劇者，于斯加生麥芽· 茵陳· 川棟子即無斯弊....

5] 「中風斟證」¹³⁾

第四節 論閉證宜開

....그렇다면 이 證(閉證)을 다스리는 자는 자연 반드시 막힌 것을 여는 것(開閉)을 急務로 하고, 潛陽降氣와 鎮逆化痰은 오히려 그 다음이다. 만약 氣가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氣를 통해야 하니, 通關散을 搐鼻하여 재채기를 하게 하고, 水溝穴과 合谷穴 등을 刺鍼하여 知覺을 회복시키는데, 모두 開關하는 捷訣이다....그 昏厥이 이미 깨어나고 소리가 나오며 牙關이 열리기를 기다려 급히 潛陽鎮逆하고 化痰하는 藥을 투여하면 곧 능히 救할 수가 있다....

第五節 論脫證宜固

....또 眞陰이 아래에서 虛竭되어 無根之火가 창졸간에 沸騰하여 氣와 痰이 솟구쳐 올라가 위로 神志를 가려서 갑자기 驚厥하는 것도 있는데,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손은 팽 쥐지 않고 목소리가 쉬고 숨이 가쁘고 혀가 짧아지고 얼굴이 푸르며,甚하면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손발이 차고 脈이 伏하여 보이지 않고 大小便을 失禁하며 氣息이 微細하여 거의 이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眞元이 衰微하여 龍火와 雷火가 暴動한 脫證이다.... 그런즉 治法은 더욱 반드시 眞陰을 攝納하고 元氣를 固護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니, 戀陰益液하는 약제를 곧 마땅히 虛陽을 潛鎮하는 法과 함께 쌍방을 같이 투여하여 재빨리 약을 쓰면 바야흐로 한 들은 구하기를 바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다. 가령 人蔘, 阿膠, 山茱萸肉, 鷄子黃 등 戀陰滋養하는 약과 반드시 龍骨, 牡蠣, 玳瑁, 龜板, 鱉甲 등 潛鎮하는 약을 濃煎하여 자주 먹이면 거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痰涎은 開泄

하는 여러 약을 또한 그 사이에 섞어서 그 滋填하는 힘을 덜어서는 안된다.... 만약 痰이 막힌 것이 일단 열리고 정신이 깨어나고 氣息이 이어지면 滋液育陰하고 潛鎮攝納하는 약을 또한 반드시 급히 계속 먹이고 중단해서는 안되니, 틀림없이 元氣가 점차 회복되기 形神이 점차 振作될 수 있다....

진실로 養液戀陰하는 약이 아니면 결코 거의 끊어질 것 같은 眞元을 救하고 龍火, 雷火 같은 浮火를 거두어 넣어둘 수 없을 것이다.

第六節 論肝陽宜于潛鎮

갑자기 昏倒하는 것은 그것이 閉證인지 脫證인지 살펴 결정하여 分別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그 閉하는 것은 木火가 미쳐 날뛰어 風을 煽動하여 위로 치밀어 올라 淸空의 竅隧를 요란한 것이고, 그 脫한 것은 龍火, 雷火가 급히 질주를 하여 주제넘게 위로 飛揚하여 그 안락한 집이 있는 故鄉(肝, 腎, 膽 등)을 떠난 것이다. 대체로 火焰이 치솟는 것은 진실로 肝膽이 放恣하고 사나와서 虛陽이 暴動한 것으로 역시 肝腎의 浮陽이다. 그러므로 閉證과 脫證의 차이점은 자연히 하나는 實이고 하나는 虛이어서 그 來源이 진실로 확연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形態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閉證과 脫證이 일치하는 것은 肝腎을 막론하고 모두 相火가 제 소굴에서 안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따라서 潛藏이 급히 요구되는 좋은 계책이다.

潛陽의 法에는 介類만큼 좋은 약은 없다....무릇 浮陽이 上越하여 靈府를 蒙蔽할 당시는 바로 雲霧가 공중에 자욱하여 天地가 캄캄하게 꼭 막힌 것과 같으니, 沈潛하는 힘으로 陰霾를 收攝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먼지를 싹 쓸어 우주를 깨끗하게 하겠는가?

이것이 珍珠母, 石決明, 玳瑁, 牡蠣, 貝齒, 龜板, 鱉甲 등 몇가지가 潛陽하는 최상의 오묘한 약제가 되는 까닭이고, 石類 중에 磁石, 龍骨은 흡인력을 갖추고 있어 그 작용도 또한 같다....金石類의 黑鉛, 鐵落, 代赭石, 辰砂 같은 것은 오

직 鎮墜함은 뛰어나지만, 흡인할 수가 없어 (효력이) 이것보다 떨어진다....그 나머지 紫石英, 海浮石, 玄精石, 寒水石 같은 것은 力量이 비교적 薄弱하므로 輔佐하는 약으로 쓸 수 있지만 主藥은 아니다....

오직 閉證은 오히려 實證에 가까운 즉 開關하는 처음에 곧 潛降하는 약을 사용하여 그 거꾸로 치솟는 형세를 진정시켜야 하며, 重墜劫痰하는 약도 또한 꺼릴 바가 아니다. 그 泛濫하는 氣焰이 아직 有餘하기 때문에 근본이 비록 虛하다더라도 오히려 아직 먼저 다스리지 않는 것이니, 靑鉛, 鐵落 같은 重藥도 또한 짐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脫證은 순전히 虛證에 속하므로 치료를 시작하는 처음에 곧 모름지기 固液戀陰하되 이 潛陽하는 藥品을 참고해서 合用해야 하며, 金石類의 重墜하는 藥은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 거의 끊어질 것 같은 眞元은 남아있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주 위험하고 갑자기 絶命할 우려가 있으니, 五味子, 何首烏 등 眞元을 收攝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并行하여야 잘못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같이 龍火, 相火를 潛藏하고 肝腎을 收攝하는 大法이지만, 다만 證情의 虛實이 다르므로 곧 輔佐하는 藥은 이것을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肝木의 放恣함을 柔和하고 위로 뜬 浮陽을 斂藏하는 것은 진실로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諸般 病變은 肝陽이 가장 많아 潛鎮柔肝하는 治療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또한 가장 기이하고 빠름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그 肝을 잘 길들여서 橫逆하지 않게 하여 百病을 치료한다면 모두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험삼아 千金方과 外臺秘要의 中風에 관한 각 처방을 읽어보면 金石類藥을 오래 전부터 볼 수 있는데, 가령 金匱要略에 附入된 風引湯 一方은 이미 龍骨, 牡蠣를 사용하고 또 다시 石類六種을 사용하여 淸熱鎮重하였으니, 대체로 이미 風이 안에서 動한 것은 모름지기 潛降하는 뜻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中風條辨」¹⁴⁾

閉證의 主要 症狀은 갑자기 昏倒하고, 人事不省, 牙關緊急, 口噤不開, 兩手握固, 大小便閉, 肢體強痙 등이다. 이러한 症狀은 肝陽暴張, 陽升風動으로 氣血이 上逆하는데 痰고 火를 끼고 위로 淸竅를 막았기 때문에 갑자기 昏倒하고, 人事不省하는 것이다.... 만약 面赤心煩熱, 氣粗口臭, 躁擾不寧, 舌苔黃膩, 脈象弦滑하면서 數하고, 血壓이 너무 높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症狀이 兼하고 있으면, 이는 風火痰熱의 邪氣가 위로 淸竅를 막아서 內閉된 것으로 이는 陽閉이다....

陽閉의 치료는 辛涼開竅, 淸肝熄風해야 하니 먼저 安宮牛黃丸 혹은 局方至寶丹을 복용하여 辛涼開竅시키고, 兼하여 羚羊角湯加減을 복용하여 淸肝熄風, 育陰潛陽시킨다....

脫證의 主要 症狀은 갑자기 昏倒, 人事不省, 目合口張, 鼻鼾息微, 手撤肢冷, 汗多, 大小便自遺, 肢體癱瘓, 舌痿, 脈微或弱, 血壓의 偏低 혹은 계속적인 下降, 甚하면 간혹 測定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陰陽이 脫離하여 精氣不交하면 급히 扶正固脫, 益氣回陽해야 한다. 급시 參附湯大劑를 써서 그 陽을 峻補시킨다. 陽回된 후에 患者가 面赤足冷, 虛煩不安, 맥이 매우 細하고 끊어지려고 하거나 혹은 浮大하고 根이 없어 보이면 이는 眞陽虧損된 것으로, 陽이 의지하여 붙어 있을 곳이 없어 虛陽이 浮越하여 脫하려는 증상이다. 地黃飲子 또는 十補丸加減을 계속 복용시켜 滋養眞陰, 溫補腎陽으로 回陽固脫한다....

....半身不遂가 心肝火暴盛하여 佛熱鬱滯하고, 氣血이 宣通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患側に 강한 拘攣症狀과 아울러 頭疼頭暈, 面赤耳鳴, 舌紅, 苔黃, 脈弦硬有力한 증상이 나타나게되는데, 平肝潛陽, 熄風通絡하여 치료하며, 鎮肝熄風湯 혹은 天麻鉤藤飲을 加減하여 치료한다....

中風의 오래되면 肝腎이 陰虛해져서 肝陽偏亢하고 心神을 搖動하거나 腎虛精虧하여 腦失所養하므로 癲癇이 발생할 수 있다.... 中風의 肝腎陰虛로 인하여 癲癇이 발생한 경우는 평상시 睡眠

不寧, 記憶力減退, 腰痠, 頭暈, 大便乾燥, 舌質紅, 脈細數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滋補肝腎, 潛陽安神하여 치료하며 大補元煎을 加減하여 사용한다...

7] 「臟腑辨證論治」¹⁵⁾

肝風內動

風은 內風과 外風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肝風이라고 하면 內風을 가리키는 말이다. 肝風은 抽搦, 振顫, 麻木 등을 主症으로 삼으며, 病因과 病機 및 治療에 따라서 肝陽化風, 熱極生風, 血虛生風의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서 肝陽化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證候 : 眩暈欲倒, 頭痛如掣, 肢麻震顫, 手足蠕動, 言語不利, 步行不穩, 舌紅, 脈弦細. 만약 卒然昏倒, 舌強不語, 口眼喎斜, 半身癱瘓하면 中風이 된다.

病機 : 본래부터 陰虛한 體質인데다가 肝陽이 亢盛하게 되면 이것이 火로 化하여 內風이 발생하고, 風邪가 煩疼한 즉 火氣가 浮亢함으로써 頭痛眩暈하여 쓰러질 듯하며 肢體가 麻痺되고 筋肉이 파르르 떨리면서 手足이 꿈틀거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되니 이것은 風이 動한 象이다. 위로는 風이 動하여 上盛하게 되고 아래로는 陰이 虧하여 下虛하게 되는데, 이렇듯 上盛下虛함으로써 걸어가기가 不安해지고 마치 虛空에 떠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또한 風痺이 盛한 즉 津液을 메마르게 하여 痰을 이루게 되는데, 陽이 風痰을 끼고 위로 올라가 清竅를 動搖시킴으로써 갑자기 精神을 잃고 쓰러지게 되며, 痰이 經絡을 따라다님으로 말이암아 氣血이 逆亂되어서 口眼喎斜, 半身不遂, 舌強不語 等症이 나타난다.

治法 : 滋陰平肝熄風

方藥 : 鎮肝熄風湯(牛膝, 代赭石, 龍骨, 牡蠣, 龜板, 芍藥, 玄參, 麥門冬, 川棟子, 麥芽, 青蒿, 甘草)

陰虛陽亢

證候 : 肝陰이 虛한 症狀 외에 頭目脹痛, 眩暈, 耳鳴, 肢體麻木, 舌紅苔薄黃 및 脈弦緊 등 증도 나타난다.

病機 : 肝陰이 부족한 반면 肝陽이 亢進됨으로써 頭目이 脹痛, 眩暈하고, 腎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耳鳴하게 되며, 肝血이 不足하여 筋脈을 濡養하지 못하므로 肢體가 麻木해진다. 本證은 肝腎이 陰虛하여 陽을 制御하지 못함으로써 肝陽의 升發作用이 太過하여 發生하는 本虛表實證이다.

治法 : 滋陰平肝潛陽

方藥 : 杞菊地黃丸(六味地黃丸 加 枸杞子, 菊花) 天麻鉤藤飲(天麻, 鈞鉤藤, 茯神, 桑寄生, 杜沖, 牛膝, 益母草, 夜交藤, 黃芩, 梔子, 石決明) 建瓴湯(龍骨, 牡蠣, 生地黃, 代赭石, 山藥, 牛膝, 白芍藥, 柏子仁) 鎮肝熄風湯.

8] 「傳統老年醫學」¹⁶⁾

...綜上所述, 中風은 肝, 脾, 腎, 心諸臟功能失常所致. 其性質是本虛標實. 在肝, 其本多爲血虛(或陰虛), 其標多爲肝風或肝火; 在脾其本多爲氣虛, 其標多爲痰濕; 在腎, 其本多爲陰虛 其標多爲陽亢; 在心, 其本多爲心虛, 其標爲心火, 上述四臟在病理相互相影響, 相互作用而突然發病.

中風屬于老年人最常見的本虛表實證. 在本爲氣血衰少, 肝腎不足; 在標爲風大痰濕壅盛, 氣血郁阻. 發病以卒倒急激爲多見, 治之當首辨其中經絡·中臟腑.

(1) 中經絡....陰虛血熱, 風陽上擾

主症 : 平素頭痛眩暈, 耳鳴目糊, 五心煩熱, 少寐多夢, 腰痠腿軟, 突然發生口眼喎斜, 舌強言蹇, 或頸項強直, 或手足重滯, 半身不遂, 舌質紅苔黃, 脈弦滑數.

治法 : 育陰潛陽, 鎮肝熄風

處方 : 鎮肝熄風湯加減. 或頭痛劇烈加夏枯草, 生石決明; 煩熱者加龍膽草, 黃芩; 嘔吐者加竹瀝.

(2) 中臟腑...閉證

主證 : 突然昏倒, 不省人事, 牙關緊急, 兩手握固.

陽閉 - 兼見顏面紅潮, 呼吸氣阻, 口臭身熱, 躁動不安, 痰聲如鉅, 二便閉阻, 舌紅苔黃膩, 脈弦滑而數.

陰閉 -

治法 : 宜先開竅, 繼用平肝熄風 或豁痰熄風

處方 : 牙關緊閉不開, 或先用通關散取嚏, 以開其關. 陽閉宜先辛涼開竅, 將至寶丹研末用竹瀝水一兩, 兌入生薑汁少許灌服. 再與平肝熄風, 育陰潛陽, 方用羚羊角湯....

(3) 中臟腑...脫證

主證 : 突然昏倒, 不省人事, 口開水撒, 汗出如油, 手足逆冷, 兩眼緊閉, 鼻鼾息微, 二便失禁, 舌痿, 或汗出痰壅, 脈沈細欲絕.

治法 : 先扶陽救脫, 繼用潛浮陽, 補真陰法

處方 : 參附龍牡湯. 汗多不止者, 加黃芪 山茱萸 五味子以斂汗固脫. 回陽後加改用地黃飲子加減, 或用生脈散加味以滋養真陰, 溫補腎陽, 回陽固脫.

9] 「實用中醫內科學」¹⁷⁾

...古今의 治療原則이 같지 않은데, 金元時代가 分水嶺이 된다. 金元以前 醫家는 外風이 안으로 들어와서 發病한다는 說을 支持하고 治療에 있어서도 祛風爲主였다. 이에 반해 金元以後에는 中風治療에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는데, 清·尤在攄은 「金眞翼, 中風總論」에서 一曰開關, 二曰固脫, 三曰泄大邪, 四曰轉大氣, 五曰逐癱瘓, 六曰除熱氣, 七曰通竅燧, 八曰灸俞穴의 中風八法을 立論하여 病機를 勘案한 단계별 辨證論治를 強調하였다. 閉證에 활용되는 開竅法을 예로 들면 “卒然口噤目張, 兩手握固, 痰壅氣塞, 無門下藥, 此爲閉證. 閉則宜開, 不開則死.”이고 脫證에 활용되는 固脫法의 回陽救逆을 예로 들면 “卒然之後, 但見目合 口開 遺尿自汗者, 無論有邪無邪, 總屬脫證. 脫則宜固, 急在無氣也.” 開竅와 固脫法을 제외하고도 後世 醫家들은 前人的 醫述을 종합하고 臨床辨證에 依據하여 滋陰潛陽, 平肝

熄風, 通腑化痰, 活血通絡, 清熱除痰, 健脾利濕, 益氣養血 등의 治法을 靈活히 運用한다. 活血化痰治法은 清代의 王清任 이후 許多한 醫家들이 公히 追從하여 近代에까지 中風治療에서 좋은 療效를 내고 있다.

1. 中經絡...肝腎陰虛, 風陽上擾

症狀 : 平素頭暈頭痛, 耳鳴目眩, 少眠多夢, 腰痠腿軟, 突然一側手足沉重麻木, 口眼歪斜, 半身不遂, 舌強語蹇, 舌質紅, 苔白或薄黃, 脈弦滑 或弦細而數.

治法 : 滋養肝腎, 平肝熄風

方藥 : 鎮肝熄風湯加減. 方中에 生龍骨, 生牡蠣, 代赭石을 使用하여 鎮肝潛陽하고, 釣鉤藤, 菊花로써 熄風清熱하며, 白芍藥, 玄參, 龜板을 써서 肝腎之陰을 滋養한다. 또 牛膝을 重用하고 川棟子로 輔하여 氣血을 끌어 下行하게하고, 茵陳, 麥芽를 合하여 清肝舒郁한다.

2. 中臟腑...陽閉證

治法 : 辛涼開竅, 清肝熄風.

方藥 : 常選局方至寶丹一粒灌服 或鼻飼以開竅; 并用<醫醇義> 羚羊角湯加減, 以清肝熄風, 滋陰潛陽. 方中 羚羊粉加以沖服, 背以石決明 代赭石 菊花 黃芩 夏枯草 釣鉤藤 清肝熄風; 龜板 白芍育陰; 代赭石潛鎮; 丹皮涼血清熱; 天竺黃清化痰熱....

10] 「中醫內科學」¹⁷⁾

中風

(1) 中經絡

1. 脈絡空虛, 風邪入中

2. 肝腎陰虛, 風陽上擾

症狀 및 分析 : 頭暈頭痛, 耳鳴目眩, 面紅烘熱 - 肝腎陰虛, 風陽內動, 上冒巔頂.

腰膝酸軟, 少寐多夢, 心悸虛煩 - 腎陰不足, 虛火上炎, 內擾神明, 心腎不交.

口眼喎斜, 舌強語澀, 半身不遂 - 陽升風動, 挾持痰火, 阻滯經絡.

舌紅苔膩, 脈弦細數或堅弦滑 - 陰虛陽亢, 痰熱內蘊, 引動肝風.

治法：育陰潛陽，鎮肝息風。

方藥：鎮肝熄風湯爲主方。

(2) 中臟腑

1. 閉證

1) 陽閉

症狀 吳 分析：突然昏倒，不省人事，牙關緊急，口噤不開，兩手握固，肢體強痙 - 肝陽暴張，引動氣血上逆，挾持痰火，阻絡蒙竅

小便不通，大便閉結 - 氣火逆上，有升無降，邪閉不泄，腑氣不通。

面色潮紅，煩燥不寧，氣粗口臭，手足溫熱 - 風化內旋，陽熱偏盛。

舌苔黃膩，脈弦滑數 - 風陽升動，痰熱邪實內盛。

治法：辛涼開竅，清肝熄風

方藥：用至寶丹或安宮牛黃丸，辛涼開竅。并用羚羊角湯加減以清肝熄風，滋陰潛陽。

11] [方劑心得十講]¹⁸⁾

第四講 祛風·祛寒·祛濕的方劑

1. 風引湯 <金匱要略>

大黃 乾薑 龍骨 各60克 桂枝 45克 甘草 牡蠣 各30克 寒水石 滑石 赤石脂 白石脂 紫石英 石膏 各90克 上藥共爲粗末，每此用 4-6克，以水貳消杯煎者 3-4沸，去渣，分兩次溫服。大便乾燥者，加稍加良，大便溏泄者，加稍減量，或一日服1次，靈活掌握。

此方古人主治大人風引(風癇掣引)癱瘓，小兒驚癇·癩癧，日數十發者。自60年代起我會用此方治療血壓高·體盛便秘·頭昏欲作中風者·可以起到豫防中風的作用，也用于治療腦血管病(中風)後遺半身不遂，并能豫防“復中”(第2次 或 第3次中風)，均起到了理想的效果。此方爲鎮降清熱之劑。中風之病，原因雖有種種，但多由于風火內生，痰熱亢盛逆塞靈竅，故昏倒而人事不省，痰阻經絡而肢體不遂等等。方中以龍骨潛鎮安神，牡蠣潛志斂神，桂枝通陽氣，甘草緩急迫，四藥相合，先安心腎爲主藥。內風發動必挾肝木之勢侮其脾土，脾氣不行，則濕停液聚 又受風火相燔而濕熱生痰，可致風痰

上犯之證，故又以大黃蕩滌濕熱風火之邪，活血祛瘀，推陳致新，以祛痰火阻塞之源，爲輔藥。又取乾薑溫脾燥濕，并防寒藥傷中；的·白石脂燥濕健脾，石膏清肺以制肝，爲佐藥。更用寒水石之寒，以將腎水制火之陰氣，紫石英之甘溫以鎮補已虛之心神，爲使藥...

4. 地黃飲子<宣明方論>

生地黃 90克 巴戟天 山茱萸 石斛 肉蓯蓉 炮附子 肉桂 茯苓 麥冬 菖蒲 遠志 各30克 五味子 15克 上藥共爲細末，每服 10克，用水一杯半，生薑 3片，大棗 1枚，薄荷少許，同煎至八分杯，溫服。近代多以上方根據辨證，適當增減，作湯劑煎服。

主治中風·少陰之厥不至，心腎不交，發爲風痺，舌瘖不能言，足癱不能行，大小便或秘閉或失禁或正常，或兼面赤煩渴等。

本方重用地黃以滋腎之真陰，巴戟·肉蓯蓉·肉桂·附子以追復真元之火， 石斛養胃安神而秘氣，山茱萸酸澁溫肝以固精，菖蒲·遠志·茯苓補心開竅而通腎臟，麥冬·五味子補肺養陰以滋水源。使心腎相交，精氣漸旺，風火自熄...

III. 考 察

潛陽이란 治療法의 하나로 陰虛로 肝陽이 上升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또한 陽氣가 위로 떠오르는 것을 가라앉게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肝腎陰虛로 肝陽이 상승하여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잘 들리지 않고 팔다리가 저리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 潛陽法을 쓰게 되니 滋陰藥에 牡蠣, 龍骨, 磁石, 代赭石 등 질량이 크고 鎮靜作用이 있는 약을 넣어 쓰는 것 등이다.¹⁹⁾ 주로 肝陽上亢, 陰虛陽亢, 陰虛肝旺으로 인한 諸症狀과 肝風內動의 中風病機에 滋陰法과 同伴하여 活用된다. 肝陽上亢은 肝腎陰虛하여 肝陽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上部로 抗逆되거나, 혹은 鬱怒나 勞心焦思 등으로 氣機가 鬱結하여 化火하고 陰血을 內耗하여 陰이 陽을 制約하지 못하는데서 起因하고, 肝陰不足은 본래 肝血虛證 외에 微熱, 盜汗, 顴紅, 心煩, 不眠, 反復性 潮熱, 汗

出, 舌紅少苔 등의 陰虛內熱證을 兼한 것으로 주로 慢性肝炎, 肝硬變, 高血壓, 更年期症候群, 眼科疾患, 神經衰弱 등에서 나타나며, 肝陽上亢은 특히 高血壓, 노이로제, 眼科疾患 등의 病變에서 나타난다.²⁰⁾

中風 治法 중에 潛陽法을 활용한 경우를 살펴 보면, 「千金方」과 「外臺秘要」의 中風에 관한 각 처방에서 金石類藥을 오래 전부터 볼 수 있고, 「金匱要略」에 附入된 風引湯 一方은 이미 龍骨, 牡蠣를 사용하고 또 다시 石類 六種을 사용하여 淸熱鎮重하여, 이미 風이 안에서 動한 것은 모름지기 潛降하는 뜻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葉7)은 華南田에 의해 結集된 「臨証指南醫案」을 통하여 中風이 內因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內風說”을 제시했는데, “腎虛液少, 肝風內動, 爲病偏枯, 非外來之邪”라 하여 中風의 원인으로서 內因을 강조하였다. 이를 “內風”이라 하고 “內風, 身中陽氣之變動”으로 정의했다. 즉 中風의 病理機轉은 “肝爲風臟, 因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養, 故肝陽偏亢, 內風時起”로 요약할 수 있다. 中風의 治療原則으로 滋液熄風, 濡養營絡, 補陰潛陽할 것을 말하고 虎潛丸, 固本丸, 復脈湯의 類를 들었다. 肝風證治에 대해서도 자세히論하였는데, 肝風은 中風이 일어나기 前의 상태로 증상이 中風에 비해 가볍게 나타나고 肝風이 심해지면 中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精液有虧, 肝陰不足, 血燥生熱, 熱則風陽上升, 竅絡阻塞의 病理機轉에 의하여 頭目不清, 眩暈跌仆, 甚則癱瘓瘳厥케 된다 하고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을 治療原則으로 내세워 일관되게 肝腎을 중요시하면서 滋液補陰하므로써 熄風潛陽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治法으로 제시하고 있다.

林¹¹⁾은 葉天士의 內風說을 대부분 따랐으며 治法方藥에서도 역시 補陰潛陽의 治法과 虎潛丸, 固本丸, 復脈湯의 類의 治方을 말하였다.

張¹²⁾은 中風에 대하여 “肝風因虛而動, 愈迫陽氣上浮. 然此乃內生之風, 非外來之風也.”라 하고 마땅히 芍藥, 龍骨, 山茱萸肉 등의 濡潤收斂之品

으로 熄之한다고 하였다. 鎮肝熄風湯을 創製하여 內中風證, 其脈弦長有力, 或上盛下虛, 頭目時常眩暈, 或腦中時常作疼發熱, 或目張耳鳴, 或心中煩熱...의 치료에 응용하였는데, 方中の 龍骨·牡蠣·龜板·芍藥으로는 鎮熄肝風하고 赭石으로 降胃·降沖하며 玄蔘·天冬으로는 肺中淸肅之氣를 下行케 함으로써 鎮制肝木을 도모하였다. 또한 熄風湯으로 類中風之證을 다스리는 경우에도 龍骨·牡蠣로 收斂하여 陽이 능히 下濟하게 하고, 山茱萸와 熟地黃으로 填補其破陰之紐하였다.

張¹³⁾은 中風에 대해 肝腎을 막론하고 모두 相火가 제 위치에서 안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潛藏이 급히 요구된다고 하여 閉脫證 모두에서 潛陽法을 사용하였다. 閉證에서는 우선 먼저 그 氣를 通해야 하므로 通關散을 搐鼻하고 水溝穴과 合谷穴 등을 刺鍼하여 開關한 다음, 그 昏厥이 깨어나고 소리가 나오며 牙關이 열리기를 기다려 급히 潛陽鎮逆하고 化痰하는 藥을 투여하면 救할 수가 있다고 하여, 開關이 急先務이고 潛陽降氣와 鎮逆化痰은 그 다음으로 제시하였다. 脫證에 대해서는 眞元이 衰微하여 龍火와 雷火가 暴動한 것으로 보고 회복이 쉽지 않은 險證이라 하였으며, 治法으로는 급히 眞陰을 攝納하고 元氣를 固護하기 위하여 戀陰益液하는 治法에 虛陽을 潛鎮하는 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人蔘, 阿膠, 山茱萸肉, 鷄子黃 등 戀陰滋養하는 약과 반드시 龍骨, 牡蠣, 玳瑁, 龜板, 鱉甲 등 潛鎮하는 약을 濃煎하여 자주 복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潛陽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介類를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珍珠母, 石決明, 玳瑁, 牡蠣, 貝齒, 龜板, 鱉甲 등이 최상의 약제가 된다고 하였다. 石類 중에서는 磁石, 龍骨은 흡인력을 갖추고 있어 潛陽作用이 좋고, 金石類의 黑鉛, 鐵落, 代赭石, 辰砂 같은 것은 鎮墜한 성질은 뛰어나지만 흡인력이 없어 효력이 떨어지며, 그 나머지 紫石英, 海浮石, 玄精石, 寒水石 같은 것은 力量이 비교적 薄弱하다고 하였다. 閉證은 오히려 實證에 가까운 즉 開關하는 처음에 곧 潛降하는 약을 사용

하여 그 거꾸로 치솟는 형세를 진정시켜야 하며, 靑鉛, 鐵落 같은 重藥도 짐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脫證은 순전히 虛證에 속하므로 치료 초기에 반드시 固液戀陰하되 潛陽하는 藥品을 참고해서 合用해야 하고, 金石類의 重墜하는 藥은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하여 閉脫證에서의 潛陽治法을 구별하였다. 마지막으로 諸般 病變 중 肝陽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기에 潛鎮柔肝하는 治療가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기이하고 빠르며, 肝을 다스리는 法은急하면 그 標證을 안정시켜야 하니 鎮攝潛陽이 急務가 되고, 緩慢하면 그 근본을 培養하는 방법으로 育陰養血을 제시하였다.¹³⁾

金¹⁵⁾은 본래 陰虛한 體質인데다가 肝陽이 亢盛하게 되고 이것이 火化하여 內風이 발생한 肝風內動의 경우 鎮肝熄風湯으로 滋陰平肝熄風하였고, 肝陰이 虛해서 되는 陰虛陽亢의 경우는 杞菊地黃丸, 天麻鉤藤飲, 建瓩湯, 鎮肝熄風湯을 응용한다고 하였다.

李¹⁶⁾는 陰虛血熱, 風陽上擾한 中經絡에 대해 治法으로는 育陰潛陽, 鎮肝息風을 제시하고 處方으로 鎮肝熄風湯加減을 들었는데, 頭痛劇烈에는 夏枯草, 生石決明을, 煩熱者에는 龍膽草, 黃芩을, 嘔吐하는 者는 竹瀝을 加하였다. 中臟腑 중에서 閉證에 대하여 潛陽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突然昏倒, 不省人事, 牙關緊急, 兩手握固, 兼見顏面紅潮, 呼吸氣阻, 口臭身熱, 躁動不安, 痰聲如鉦, 二便閉阻, 舌紅苔黃膩, 脈弦滑而數한 陽閉에 대하여 우선 開竅한 다음에 이어서 平肝熄風 或豁痰熄風하였다. 處方을 응용한 것을 살펴 보면 至寶丹 研末을 竹瀝水 一兩으로 넘기고 다시 羚羊角湯을 주어 平肝熄風, 育陰潛陽을 시도하였다. 脫證에 대해서도 우선 扶陽救脫한 연후에 潛浮陽, 補眞陰하는 方法을 사용하였으며 處方으로는 參附龍牡湯을 들었다.

方¹⁾은 肝腎陰虛, 風陽上擾하게 된 中經絡에 대해 역시 鎮肝熄風湯加減을 사용하였는데 方中에 生龍骨, 生牡蠣, 代赭石을 使用하여 鎮肝潛陽하고, 鈞鉤藤, 菊花로써 熄風清熱하며, 白芍藥, 玄參, 龜板을 써서 肝腎之陰을 滋養한다.

陽閉證에는 辛涼開竅, 清肝熄風 治法으로 다스리며 局方至寶丹을 灌服하거나 鼻飼하여 開竅하고 아울러 羚羊角湯加減으로 清肝熄風, 滋陰潛陽하였다.

張¹⁴⁾은 卒然昏倒, 人事不省, 牙關緊急, 兩手握固 등의 증상에 面赤心煩熱, 氣粗口臭, 躁擾不寧, 血壓이 너무 높거나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症狀이 兼해 있으면 風火痰熱의 邪氣가 위로 清竅를 막아서 內閉된 것으로 診斷하여 陽閉라 하였다. 陽閉의 치료는 辛涼開竅, 清肝熄風해야 하니 먼저 安宮牛黃丸 혹은 局方至寶丹을 복용하여 辛涼開竅시키고, 兼하여 羚羊角湯加減을 복용하여 清肝熄風, 育陰潛陽시킨다. 脫證은 급히 扶正固脫, 益氣回陽해야 하니 參附湯大劑를 써서 그 陽을 峻補시키는데, 陽回된 후에 患者가 面赤足冷, 虛煩不安, 脈이 매우 細하고 끊어지려고 하거나 혹은 浮大하고 無根하면 이는 眞陽虧損된 것으로, 陽이 의지해 있을 곳이 없어 虛陽이 浮越하여 脫하려는 증상이라 하였다. 地黃飮子 또는 十補丸加減을 계속 복용시켜 滋養眞陰, 溫補腎陽으로 回陽固脫한다고 하여 潛陽法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心肝火暴盛하여 佛熱鬱滯하고, 氣血이 宣通하지 못하여 발생한 半身不遂에 대해 平肝潛陽, 熄風通絡하는 의미로 鎮肝熄風湯 혹은 天麻鉤藤飲을 加減하여 치료하거나, 中風이 오래되면서 肝腎陰虛, 肝陽偏亢하고 心神을 搖動하거나 腎虛精虧하여 腦失所養함으로써 생긴 癱瘓에 대하여 滋補肝腎, 潛陽安神하는 治法을 살펴볼 수 있다.

IV. 結 論

中風의 潛陽 治法과 관련된 歷代醫書, 中醫書 등의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中風에서의 潛陽法의 사용은 「金匱要略」의 風引湯에서부터 엿볼 수 있으나 葉天士의 內風說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항상 滋

- 陰, 補水하는 治法과 相互補完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潛陽法이 多用된 病증은 肝腎陰虛, 風陽上擾로 인한 中經絡證과 中臟腑證 중에서 陽閉證 등이며, 脫證의 一部와 中風日久로 因한 癱瘓에도 사용되었다.
 3. 潛陽法은 中風 閉脫證에서 標本의 개념에 따라 응용되는데, 閉證에는 우선 開關法을 시행한 다음 급히 潛陽降氣와 鎮逆化痰하는 약을 투여하고, 脫證에는 眞陰을 攝納하고 元氣를 固護하는 것을 急先務로 삼아 戀陰益液하는 治法에 虛陽을 潛鎮하는 法을 補助的으로 加味하였다.
 4. 潛陽藥 중에서 珍珠母, 石決明, 玳瑁, 牡蠣, 貝齒, 龜板, 鱉甲 등 介類의 효력이 뛰어나고, 金石類 중에서는 흡인력이 있는 磁石, 龍骨의 潛陽作用이 비교적 좋으며, 黑鉛, 鐵落, 代赭石, 辰砂 등은 鎮墜함은 뛰어나지만 흡인할 수가 없어 효력이 떨어지고, 그 나머지 紫石英, 海浮石, 玄精石, 寒水石 등은 力量이 비교적 薄弱하다.
 5. 潛陽法의 治方으로는 虎潛丸, 固本丹, 復脈湯, 天麻鉤藤飲, 鎮肝熄風湯, 羚羊角湯 등이 활용되었다.

參考文獻

1. 方藥中 외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pp.414-423, 1988.
2. 구분홍 외 : 동의심계내과학, 서원당, 서울, pp.229-247, 1933.
3.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신경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295-322, 1995.
4. 임준식, 이진섭 : 中風治法에 있어서 活血化癥法에 대한 문헌적 고찰, 혜화의학 5(1) : 115-128, 1996.
5. 김기열, 김종대, 정지천 : 中風의 治法 중 平肝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8(1) : 26-46, 1997.
6. 김영석 : 임상중풍학, 서원당, 서울, pp.431-449, 1997.
7. 강계성, 구삼희, 김재영 : 葉天士臨証指南醫案, 정담, 서울, pp.41-73, 1998.
8. 候美玉 외 : 清代名醫張士讓 治療中風的經驗, 中醫雜誌 제37권 제3기, pp.147-148, 1996.
9. 安日會 : 中風初期에 應用되는 疏風湯에 對한 東西醫學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3(2) : 23-29, 1992.
10. 김동건 : 국역금궤요략, 서원당, 서울, p.92, 1996.
11. 林珮琴 : 類證治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9, 1988.
12. 張錫純 : 醫學衷中參書錄 (I), 대성문화사, 서울, pp.308-313, 1992.
13. 張山雷 : 國譯 中風論註, 대성문화사, 서울, pp.262-288, 296-297, 1994.
14. 張茂珍 : 國譯 中風條辨, 대성문화사, 서울, pp.162-163, 165-169, 227, 266, 1996.
15. 金完熙, 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서울, pp.160-165, 1985.
16. 李聰甫 : 傳統老年醫學, 湖南科學技術出版社, 湖南省, pp.379-381, 1988.
17. 張伯輿 :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457-460, 1988.
18. 焦樹德 : 方劑心得十講,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97, 101, 1994.
19. 김동일, 량병무, 박위근 외 :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서울, pp.689-690, 1989.
20. 문준전, 안규석, 최승훈 : 동의병리학, 수문사, 서울, pp.332-333, 1990.

= Abstract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潛陽) to treat apoplexy

Gun-Woo Min · Jong-Hyuck Park · Ji-Cheon Jung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methods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潛陽法) are a kind of medical treatments which cure various symptoms caused by hyperactivity of liver-yang, at the same time used for treating apoplexy. Thus, I investigated the application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to treat strok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We can find application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to apoplexy on Synopsis of the Gold Chamber. After Ye Gui who persisted the theory of endogenous wind, many physicians applied the method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and this method has usually applied with nourishing yin. The methods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are concretely applied as follows. 1) a portion of apoplexy involving the channels and collaterals, which is caused by deficiency of yin and wind-fire pathogen. 2) excessive-syndrome of coma accompanied by heat syndrome. 3) epilepsy caused old apoplexy.

The majority of shells for example abalone shell, hawksbill shell, oyster shell, tortoise-shell etc. are the most frequent use of herbal drug which check the exuberance of yang. The prescriptions of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are Ho-jam-hwan(虎潛丸), Ko-bon-dan(固本丹), Cheon-ma-gu-deung-eum(天麻鉤藤飲), Chin-gan-sik-pung-tang(鎮肝熄風湯) etc.

Key words : apoplexy, checking the exuberance of yang, Chin-gan-sik-pung-tang(鎮肝熄風湯)